

뉴질랜드에 한국불교교육원

교민 발심 돕는 신행요람

교리공부 가족법회 열고 현지인 포교

지난 3월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시에서, 이민·유학한 불자들의 신행 공간으로 개원된 한국불교교육원(원장 안중서)이 최근 교리공부, 가족법회 개최 등 활동을 본격화 하면서 뉴질랜드에서의 한국 불교포교에 나서고 있다.

한국불교교육원 개원은, 국내에서 군법사와 교법사로 활동했던 안중서(46) 법사가 96년 이 곳으로 이민 온 후 한국불교의 교리와 수행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데서 비롯됐다.

살고 있는 오클랜드시에서 한국 사절은 2곳인 반면 한국 교회는 70여 곳에 이를 정도로 수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뿐더러, 사찰에서조차 초파일 행사나 특별법회 이외 불자들의 신심을 키우고 공부할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 설립된 한국불교교육원에서 교포불자들이 예불하는 모습.

읽고 토론하는 교리 공부 외에도 108 참회기도와 신행상담 등 가족의 불심을 키우고 이국에서의 외로움을 달래는 친목 모임으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차암련 회장에 듣는다

중앙탑 탑돌이 보존 문화포교 적극 나서

충주불교총련 의천스님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충주 중앙탑(국보 제6호, 중원탑령리 7층석탑) 탑돌이를 무형문화재로 등록시키고 지역 불교문화재 보존운동에 나서는 등 문화포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충주사암련에서 확대개편된 충주불교총연합회 회장 의천(칠곡사 주지)스님은 19일 21세기는 문화포교의 시대라면서 "온갖 문화유산과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충주 지역의 여건에 맞는 포교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위해 스님은 지난 7월 박상구 민주당 의원, 이시종 총선시장, 성기태 충주대 총장 등 지역 유지와 종교, 문화계 인사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국운운성 영상대제, 국민화합 열린음악회, 생태보존 방생대법회, 남북통일 기원대법회 등을 잇달아 열어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충주시에 불교문화의 향기가 넘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님은 충주불교총련 연합회 산하의 신행단체들이 개별 신행으로

성된 '중앙탑 영산대제·열린음악회 개최'를 구성하고 '양로원·교도소 위문등 후원'을 추진할 방침.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충주사암련의 전통을 잇고 140여개 회원사찰의 총의를 모아 충주불교문화 증진에 나서겠다는 의천스님은 "김생사지 복원 등 문화재 애호활동을 통해 충주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일에 더욱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주=김재경 기자

美테러 희생자 천도재

한나래문화재단 통도사 부산포교원서 봉행

(사)한나래문화재단 국제부(회장 김건웅)는 20일 통도사부산포교원 법당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로 희생된 영가들을 비롯 외국인 영가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매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연등만들기, 차만들기, 전래놀이 등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주관해 온 한나래문화재단 국제부가 그동안 참여해온 외국인들과 연관된 일체의 영가들과 이번 미국 테러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통도사부산포교원 주지 삼산스님은 이날 천도재에서 "영가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본래 없는 것을 깨닫고 극락왕생하길 간절히 발원한다"고 말했다.

김건웅 회장과 회원들은 "외국인들에게 천도재가 생소한 것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닌 윤회의 한 과정임을 이해시키고 일체 영가들의 행복을 기원해 주는 불교적 인생관을 일깨워 주는 값진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양산=천미희 기자



18일 부산 아시안로에서 나무를 심는 맑고향기롭게 회원들.

아시안게임 성공발원

'맑고향기...' 나무심기

'맑고 향기롭게 부산본부' (본부장 박수관)는 18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푸른 부산 가꾸기 일환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벌였다.

초을 어린이 대공원에서 아시안드주 경기장에 이르는 아시안로에서 행해진 이번 행사에서는 운백 200m에 사철 담쟁이 800본을 심어 삭막해 보이는 도심에 푸르름을 더했다.

천미희 기자

천태종 분당 대광사 낙성식

10월7일...주지 운덕스님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이 총본산 단양 구인사, 부산 삼광사, 서울 관문사에 이은 분사급 대표적 사찰로 건립코자 총력을 기울인 분당 대광사의 1차 불사가 완료됐다. 천태종은 10월 7일 오전 9시 30분 종정 도용스님 등 1만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5번지에서 대광사 대불보전 낙성식과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한다.



대광사 대불보전 전경.

분당 대광사는 총무원장인 운덕 스님이 주지직을 관장할 정도로 종단의 관심과 지원이 총결집된 수도권 대표적 사찰이다. 7일 낙성식을 갖는 대불보전은 연경평 1200평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3층 대방당의 면적만 300평이다.

이경숙 기자



19일 밀양경찰서에서 열린 유치인 생일법회 장면.

유치장서 자비의 생일잔치

밀양사암련, 경찰서서 법회

19일 밀양경찰서(경찰서장 송수태) 유치장안에서는 훈훈한 생일잔치가 열렸다.

밀양경찰서 유치인상담위원회(위원장 박태화)와 밀양시불교사암련 산하 연합합창단, 교화위원인 밀양 용궁사 주지 정무스님 등이 9월에 생일을 맞은 4명의 유치인들을 위해 생일상을 차린 것.

한복을 곁에 입은 합창단원들은 과일, 떡 등을 정성스레 준비하고 유치인들이 자리에 앉자 직접 작사·작곡한 생일축하곡을 부르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생일축하곡은 밀양합창단에서 직접 작사 작곡한 것.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생일잔치

는 밀양경찰서 유치장의 환경개선과 함께 유치인들의 심적 안정과 감화를 위해 마련한 것. 불자인 송수태 서장과 정무 스님 등이 유부적 환경개선에 못지 않게 내면의 안정과 위로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결과였다.

매주 2차례 유치장을 방문하고 있는 정무스님은 "순간의 실수로 이곳에 있지만 많은 불자들이 경찰서 관계자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들을 이끌어 준다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치인상담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매주 2차례 법률상담, 인생 상담, 건강 상담 등의 활동을 펼치며 유치인들의 고민해결과 교화에 힘쓰고 있다.

밀양=천미희 기자

Advertisement for Avatar Center (아바타 센터) featuring a quote: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nd contact inform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Mahamall featuring '경상' (Gyeongang) products. It includes details about '프리폼(FREE FOAM)' pillows, '37°氣 방석세트' (37°C heating stone set), and '미농' (Minong) rice. It also features a portrait of a man and the Mahamall logo.